

# 추석 가정예배 순서

2021년 9월 21일(화)  
인도 가족 중에서

묵상기도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같이  
기도 ..... 가족 중에서  
성경읽기 ..... 시편 23:1-6 ..... 인도자  
말씀 .....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가정” ..... 인도자  
기도 ..... 인도자  
찬송 .....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알림

1. 설교문은 뒷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 성경 시편 23편 1~6절

-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추석 가정예배 설교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가정 / 시편23:1-6]

추석은 농경사회였을 때 풍년을 기원하던 명절입니다. 하지만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추석 명절을 지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풍년을 통해 가족들을 넉넉히 먹이고 싶었던 선조들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는 명절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록 코로나로 인해 이전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귀경길을 나서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집에 모여 심을 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성경을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시는 양을 치던 목자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왕이 되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목자였기에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무기도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잘 속습니다. 종종 넘어지는데, 한번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줄 때까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양은 절대로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도 부족하며, 이기적이고, 잘 속으며, 종종 쓰러지는데 일어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사랑해서 지키고 이끌려고 해도, 결국은 스스로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 잡아주고 도와줄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다윗이 찾은 목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전쟁 같은 삶의 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무기이자 구조장비인 지팡이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때 툭툭 치시며 가야할 곳을 알려주시는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만일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실만한 물가와 위험한 웅덩이, 좋은 풀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애쓰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깨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서만 온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하루 먹어야 할 풀과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1절과 5-6절에서 말하는 '부족함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바로 하루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원수가 뒤쫓아 오는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겨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곁에는 고통과 죽음을 '삼 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안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가족들, 그리고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가족들이 앞에서 의로움으로 인도하시고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실 '목자 하나님'께 매순간 1분1초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